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1월 미 생산자 물가도 올라…지속적인 인플레 현상
- Bloomberg: 미 금리 상승세, 월가나 연준보다 높을 수 있다
- WSJ: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 거의 그대로…노동시장 여전히 강세

[미국 금융]
- Bloomberg: 생산자 물가 상승 탓에 미 주식 하락세
- Bloomberg: 골드만삭스, “기업들 비용 부담에 기업 분할 늘어날 것”

[뉴저지]
- NJ 101.5: E-Z 패스 자주 사용하면 할인 혜택 받는다, 법안 상정

[미국 주택]
- Bloomberg: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 5개월 동안 연속 하락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자격 갖춘 소매업 CEO가 모자란다
- NYT: 주거 공간과 가까워지는 쇼핑몰…늘어나는 아파트와 결합한다
- Bloomberg: 삼성, 스웨덴 여성 건강 앱에 투자…갤럭시 워치에 도입
- WSJ: GE HealthCare, AI 분야 진출
- Bloomberg: Nestle, 땅콩 알러지 치료법 다시 팔았다…21억 달러 회수
- CNN Business: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진출 박차…5년 만에 최대 규모 확장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바로 고침: 어제 제목 WSJ: What Is Pushing the National Debt to Its Limit?
6월 초쯤 연방 부채 상한선 넘을 듯 >>> 빠르면 6월에 연방 부채 상한선 넘을 듯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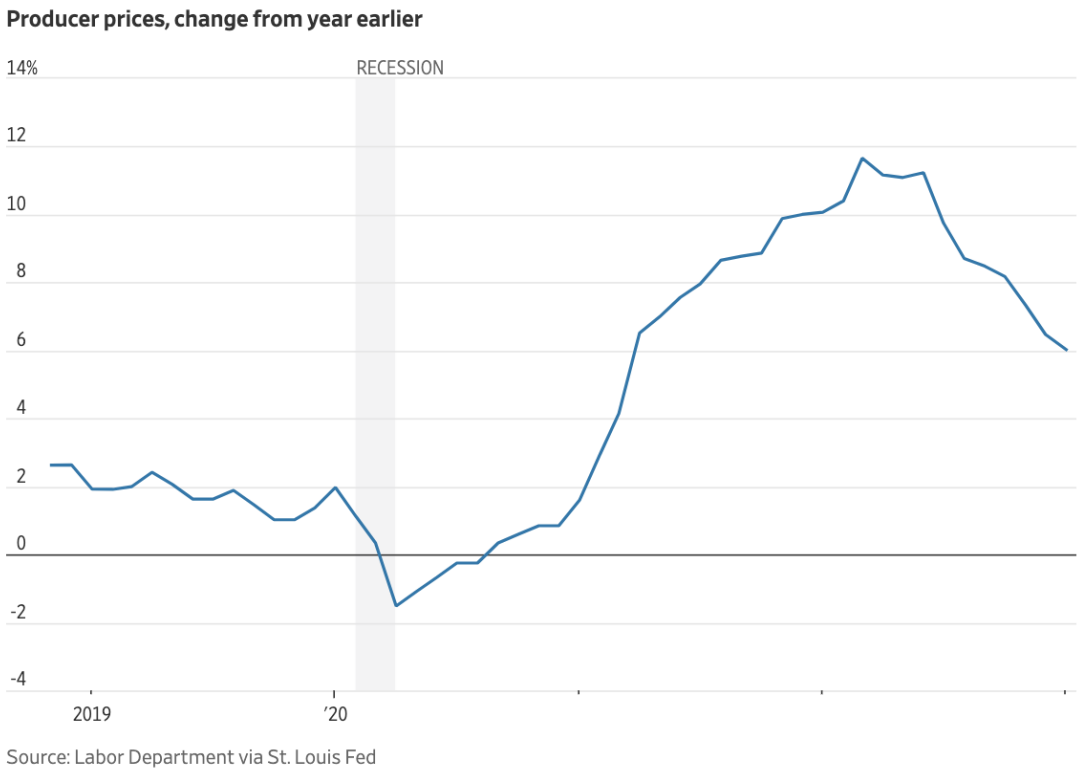
WSJ: January PPI Report Shows Producer Prices Rose, Pointing to Persistent Inflation
미 생산자 물가도 올라… 지속적인 인플레 현상

- 미 1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6% 상승했다. 경제에 대한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의미다.

- 경제의 공급 여건을 반영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12월 연율 6.5% 상승세보다는 약간 둔화하였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밝혔다. 물론 최근 최고치를 보였던 작년 3월의 연간 11.7%보다는 크게 낮았다.

- 한번 노동부가 이번주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는 6.4%. 12월의 6.4% 보다 약간 낮았다. 7개월 내리 둔화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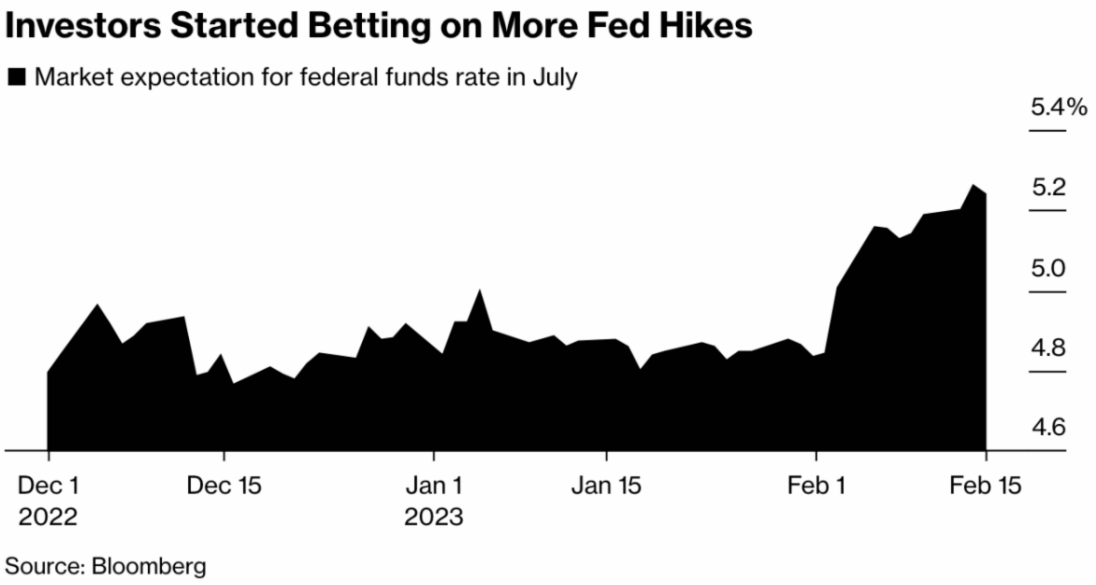
-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더 긴 기간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WSJ 기사

Bloomberg: US Rates May Be Heading Higher Than Wall Street or Fed Think
미 금리 상승세, 월가나 연준보다 높을 수 있다

- 이제 미 투자자들과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얼마나 높은 이자율이 필요한지 과소 평가하고 있을지 모른다.
- 임금이 치솟고, 소매 판매가 점프하고, 주식 가격도 치솟고 있다.
- JP 모건은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더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문제는 신용 경색이 경제에 엄습해 침체를 촉발시킬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중에 축적한 돈이 소진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Moody Analytics는 여전히 1조 6천억달러가 남아있다고 추정한다.
- 미국 자금 시장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오는 7월에 연준 금리가 5.2%까지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2주전의 4.9% 예상치보다 높다.
- Deutsche Bank Securities는 이번 주 유연한 노동 시장, 완화된 금융 조건, 고물가를 이유로 전망치를 5.1%에서 5.6%로 높였다.



Bloomberg 기사

WSJ: Jobless Claims Remained Nearly Steady Last Week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 거의 그대로…노동시장 여전히 강세

- 연방 노동부의 이번 주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1천건 감소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3년 들어 팬데믹 이전 2019년 평균치인 약 22만명을 계속해서 밑돌며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특히 환대업종과 의료 분야는 빠른 속도로 고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미국의 고용자 수는 51만 7천 명 증가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U.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via St. Louis Fed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Stocks Fall on Higher Prices, Somber Fedspeak: Markets Wrap
생산자 물가 상승 탓에 미 주식 하락세

- 1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반등한 직후 주식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지속적인 물가 압박에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할 거란 우려 때문이다.
- S&P는 오전에 -0.61%, 나스닥은 -0.47%를 기록했다.
- High Frequency Economics측은 “기업들이 인력 감소를 꺼리고 있어 아직 급격한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누적되고 추후 여파를 감안할때 향후 몇 달 동안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man Strategists See More US Spinoffs With Companies Squeezed
골드만삭스, “기업들 비용 부담에 기업 분할 늘어날 것”

- Goldman Sachs Group에 따르면 기업들이 마진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사업부들을 분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 기업들은 작년에 44개의 새로운 분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의료 장비 사업 분할과 인텐의 자율 주행 기술 사업 Mobileye 분사를 비롯해서 20개가 실제 분사가 이루어졌다.
- 미국에서 발표된 기업 분할 숫자는 작년에 33% 증가했으며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저지]

NJ101.5: A new plan to cut E-ZPass costs in half for NJ commuters
E-Z 패스 자주 사용하면 할인 혜택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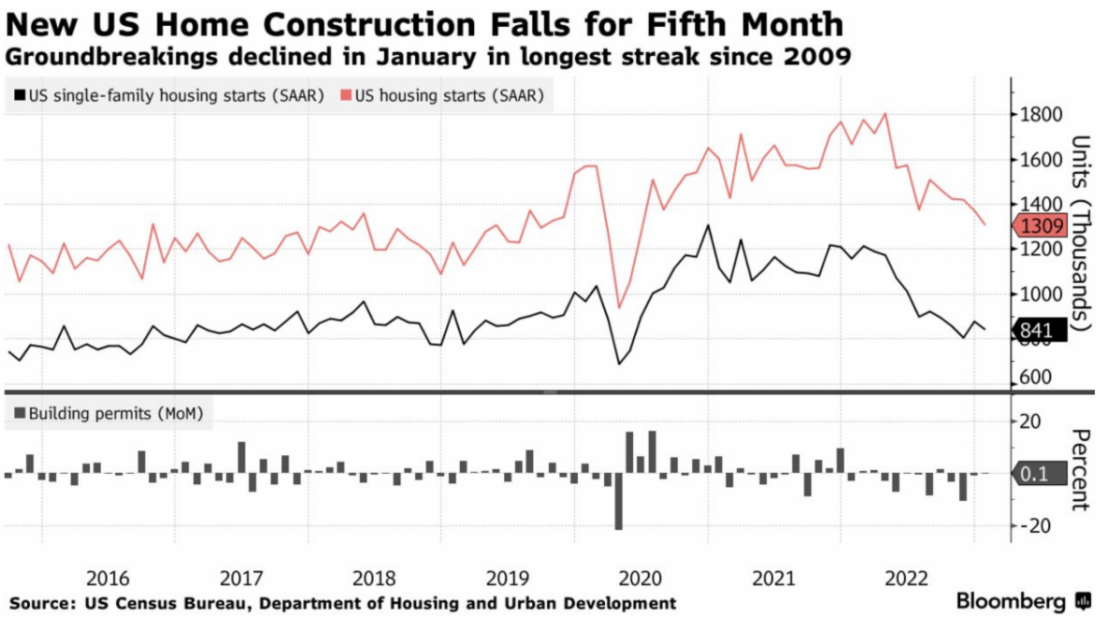
- 뉴저지 운전자로서 연 35차례 이상 이지 패스를 사용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 이름은A5205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 New Jersey Turnpike, the Garden State Parkway 또는 the Atlantic City Expressway.

NJ 101.5 기사

[미국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Drop a Fifth Month, Longest Streak Since 2009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 5개월 동안 연속 하락

- 도표 한개, 미 신규 주택 공사가 1월까지 5개월 동안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1월의 착공 건수는 지난 2020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 모기지율이 올라가다 보니 주택 수요가 힘들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 1월 착공 건수는 4.5% 낮아진 연율 1백31만채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긴 감소폭을 기록했다. 단독 주택 착공 건수는 연간 84만1천건으로 떨어졌다.
- 착공 신청 건수는 연간 1백34만채로 별 변동이 없었으며 1가구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1.8% 하락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The Retail C.E.O. Pipeline Is Running Dry
자격 갖춘 소매업 CEO가 모자란다

- 현재 포춘 1000에 속한 91개의 소매기업중에 11군데가 CEO가 없는 상태다. 특히Gap, Diesel, North Face, Vans 등 유명 소매기업들도 CEO가 없다.
- 이유는 특히 소매업계의 경우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줄어들었으며, 팬데믹이라는 격동기에 맞은 관리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CEO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 특히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가격 책정도 힘들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이다.
- 과거에는 CEO가 주로 판매 전문가로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어떻게 구매하도록 하는지 등의 기술이었다.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관리자들이 전자상거래 작동 방식, 글로벌 공급망 대응, 메타버스 같은 기술 도입 시점등을 파악해야 한다.

NYT 기사

NYT: By Adding Apartments, Malls Seek to Bring Shopping Closer to Home
주거 공간과 가까워지는 쇼핑몰…늘어나는 아파트와 결합한다

- 미 소매업자들이 젊은 세대의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이 있기를 바라는 “live-work-play”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쇼

핑몰과 아파트의 결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 이들은 주차장에 할당된 과도한 공간과 비어 있는 상가 공간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자 기업 Kimco는 이런 방식으로 2025년까지 1만 5천 가구의 쇼핑몰 인접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 또한 온라인 쇼핑에 대항해 쇼핑객들이 몰에서 더 긴 시간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식료품 체인을 더 다양하게 들여오고,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등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 특히 쇼핑센터 내에 의료 서비스 공간을 추가하는 것도 인기를 끌고 있다. 쇼핑몰이 신발과 옷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와 외식, 의료에 이르기까지 점차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Bloomberg: Samsung Invests in Swedish Fertility App for Galaxy Watches
삼성, 스웨덴 여성 건강 앱에 투자…갤럭시 워치에 도입

-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에 여성 건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스웨덴 기업의 Natural Cycles 여성 건강 추적 앱 투자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 Natural Cycles는 사용자의 체온을 모니터링해 임신율과 배란율을 추적한다. 2018년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 삼성은 NaturalCycles Nordic AB에 7백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 2분기부터 갤럭시 워치 5 기기에서 이 앱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GE HealthCare Makes Push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GE HealthCare, AI 분야 진출

- GE HealthCare Technologies Inc.가 환자 데이터를 수집해 병원의 진료 안내를 돕는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패혈증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는 등의 일을 돕는다.
- GE HealthCare는 초음파, MRI 및 기타 의료 장비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벌어왔다. 이번 결정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병원들이 원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교류하는 병원 전체의 디지털 기록을 모두 수집해야 하며, 모든 정보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도 얽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Nestle Takes $2.1 Billion Writedown on Peanut Allergy Therapy
Nestle, 땅콩 알러지 치료법 다시 팔았다… 21억 달러 회수

- Nestle가 Palforzia의 땅콩 알러지 치료법을 26억 달러에 구매한 지 2년 만에 다시 팔아 21억 달러를 되찾으면서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했다.
- Palforzia의 땅콩 알러지 치료법은 아주 정밀하게 측정된 양의 땅콩 가루를 아이들에게 조금씩 투여해 점차 내성을 키우는 방법이었다.
- 하지만 이 방법에 드는 시간과 비용, 위험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용이 꺼려져 왔으며, 따라서 Nestle의 잠재적인 판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Starbucks doubles down on Asia Pacific with biggest expansion in five years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진출 박차… 5년 만에 최대 규모 확장

- 스타벅스가 올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4백개 이상의 매장을 새로 열어 5년 만에 가장 큰 확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는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향후 장기적인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최근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며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스타벅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며, 팬데믹 역풍을 맞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Drive-Thru 매장 도입 역시 늘릴 계획이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中, 美록히드마틴·레이시온 '맞불제재'…정찰풍선 갈등증폭"

신뢰못할 단체' 지정…대중국 수출입·신규투자 금지하고 벌금

미중간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국가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각각 금지하고, 두 기업의 고위급 관리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